

## 결여된 것의 양감

### : 서걱거리는 믿음 체계와 열린 불능성

안진국(미술비평)

말은 늘 실패한다. 소통은 언제나 좌절된다. 자의적인 관계로 결합된 언어는(소쉬르) 대상의 실체를 끊임없이 유보한다(테리다, 차연[différance]). 그래서 현존을 대신하는 기호(말, 언어, 표기 등)는 지연·연기·유보된 잠정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호로 구축된 성긴 세계에서 서걱거리는 기호들의 묶음으로 소통한다. 하지만 그 묶음들은 험겁고, 기호와 기호가 이어진 마디마디마다 결여의 공간들로 넘쳐난다. 문채원은 여기를 눈여겨본다. 바로 걸으려는 견고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그 안은 서걱거리는 기호로 묶여 있는 성긴 세계. 그는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실패와 좌절, 절망, 끝없는 유보를 보여주지만, 결국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길어 올린다.

### 불능성과 가능성

문채원이 줄곧 표현한 것은 견고하다고 믿었던 믿음 체계가 내파(implosion)하는 양상이다. 2015년부터 2017년 즈음까지 작가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세워졌던 구조물이 무너지는 장면, 폭발하는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그렸다. ‘collapse’(붕괴), ‘misread’(잘못 읽은; 오해한), ‘rebuild’(재구축), ‘remake’(개작) 등이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러한 작업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체계의 몰락을 보여준다. 이것은 견고했던 것이 실은 견고하지 않았음(무너질 수 있음)을 드러내는 실패의 표징으로 읽힌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단단한 것도 유연하고 동적일 수 있음을,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rebuild’, ‘remake’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이 실패의 표징에서 새로운 재구축을 상상한다. 이것은 해체하는 것으로 재구축하는 ‘해체적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 그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구조로 제시한 포스트구조주의 관점이다.— 작가는 이렇게 구조물의 붕괴/폭발에서 불능성과 가능성을 함께 품는 모습을 보인다. —“철거 중인 건물은 불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었다.”(작업노트)— 그의 이러한 양가적 사유방식은 ‘매뉴얼’(manual, 설명서)이라는 자의적인 사회 시스템의 기호가 등장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고양되는 면모를 보인다.

작가는 2016년에 매뉴얼의 기호나 도식이 등장하는 <Manual for thin air> 연작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 연작은 붕괴하고 폭발하는 듯한 추상적 이미지에 매뉴얼에서 추출한 기호나 도식을 섞는 작업이었다. 이 시기는 작가가 구조물의 붕괴/폭발을 추상화하는 작업을 했던 시기로, 매뉴얼의 기호와 도식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작가의 사유 속에서 구조물의 붕괴/폭발과 매뉴얼이 어떤 접합 지점이나 교류하는 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정 시스템 안에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된 매뉴얼은 직관적인 답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앞에 견고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이해할 때만 매뉴얼이 효용성을 가진다. —“익숙한 기호들은 사용자의 행동을 요구하지만, 도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지 않다”(작업노트)— 문채원은 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

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이나 안내 책자가 지닌 불명확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견고할 것이라 생각했던 구조물의 붕괴/폭발과 명확하리라 생각했던 매뉴얼의 불능은 닮은꼴이다. 따라서 작가는 외적 견고함과 다르게, 언제나 붕괴/폭발되거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이 두 구조의 불능성과 재구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엮어 한 화면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열린 불능성: 결여의 형체

문체원의 매뉴얼 불능 작업이 구조물 붕괴/폭발 작업보다 고양된 작업인 것은 그 재구축(재결합) 방식이 지닌 열린 가능성(열린 불능성) 때문이다. 구조물 붕괴/폭발 작업의 재구축 방식은 ‘해체’이다. 해체를 하나의 재구축 방식으로 본다. 반면, 매뉴얼 불능 작업은 매뉴얼에서 추출한 기호, 도식, 문자 등을 분절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서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재구축 방식에서 전자가 ‘서사의 해체’라면 후자는 ‘서사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매뉴얼의 열린 결말’이라 해도 좋을 듯싶다.—

특히 2018년부터는 구조물의 붕괴/폭발 이미지를 벗어나 기호, 도식, 문자의 재조합이 주가 되는 작업을 선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는 작가가 타국에서 유학하던 시기로,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한 실수와 오해 등의 경험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작가는 “이러한 부적응과 실패의 경험을 관찰하고 [이것을] 모조설명서(pseudo-manual)의 형태로 구체화”한다(작업노트).

2016년부터 그 형식이 엇보이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인 형식을 갖게 된 이러한 매뉴얼 다변화 작업(모조설명서)은—앞단에는 ‘불능’이라 했으나, 서사를 다변화하는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다변화’로 바꿔 쓴다— 모순적인 상황과 불분명한 내용, 맥 빠지는 조언, 애매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러한 작업의 제목은 대부분 ‘무제(Untitled)’이며, 괄호()에 화면에서 엇보이는 약간의 특이점을 적는 형식을 취한다. —그 형식은 <Untitled (Handles)>(2019), <Untitled (Avoid staying in the water)>(2019), <Untitled (Peeling skin)>(2020) 등과 같다.— 작가가 제목을 ‘무제’라고 한 것은 화면에 드러난 규정할 수 없는 서사성이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형성하기 때문인 듯 하다. 규정할 수 없기에 제목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리라. 아니다. 제목조차 없애고(untitled), 서사의 뉘앙스만 남도록 괄호에 인상적인 몇 단어만 남겼으리라.

작가는 2020년부터 ‘모조설명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십자수(cross-stitch)나 터프팅(tufting) 방식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실을 직조하여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작업은 초기 컴퓨터 그래픽의 픽셀(십자수)이나, 포근한 감촉의 양털(터프팅)을 연상시키면서, 평평하고 견고한 매뉴얼을 유동성 있고 변화 가능한 체제로 옮겨놓는다. 이것은 견고한 체제를 무너트려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작가의 또 다른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체원의 작업에는 불명확, 불가능, 친밀, 유머, 장난기, 수수께끼, 오해, 맥 빠짐, 허무, 모호성, 혼란, 좌절, 실패 등이 드리워져 있다. 이것들은 시스템의 공백(void)에서 야기되는 결여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모아 형체를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긴 믿음 체계 속에 있는 불능성을 만질 수 있다.◎